

첨단소재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힘찬 발걸음

2025 핵심소재 국제표준화 포럼 성황리에 열려

탄소섬유·나노소재 등 첨단소재 분야에서 국제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머리 맞닿이 서울에서 펼쳐졌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 핵심소재(나노소재, 탄소섬유) 국제표준화 포럼이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노보텔 엠버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국제표준 개발과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계·기업·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한데 모였다.

행사에는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Nao Terasaki 박사, 중국 난징정보과학기술대학교(NJUST) Jingfa Li 교수, 가천대학교 배준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박원규 교수, 고려대학교 김일

현 교수, 케이비엘러먼트 배경정 대표, 카텍에이치 김준영 연구소장, 에코용합섬유연구원 서민강 원장, 한국과학기술원(KIST) 황준연 박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안영재 책임연구원 등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토론과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첫날 열린 '나노소재 국제표준화 포럼'에서는 중국 Jingfa Li 교수가 광충전형 에너지 소자를 위한 기능성 나노물질 전략을 발표하며 나노소재의 첨단 응용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배준호 교수는 '에너지 저장을 위한 나노물질 표준화 방향'을 소개했고, 케이비엘러먼트 배경정 대표는 '그레핀 대량 생산과 응용 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해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둘째 날 진행된 '탄소섬유 국제표준



화 포럼'에서는 일본 AIST의 Nao Terasaki 박사가 '첨단 탄소섬유복합재 산업의 표준화 동향과 전략'을 발표했다. 고려대 김일현 교수 등 국내 연사들도 재활용 탄소섬유 및 복합재료 표준 개발 방향을 제시했으며, 카텍에이치 김준영 연구소장은 '폐 CFRP 자원 순환 과제'를 다루며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탄소섬유, 그레핀, 탄소나노튜브 등 핵심소재의 최신 기술 동향과 국제표준 전략을 집약적으로 공유하는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국제표

준 선점을 통해 우리나라 첨단소재 산업이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최웅기 신뢰성 인증팀장은 "이번 포럼은 기업과 표준 전문가가 함께 전략을 논의하며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주도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국내 첨단소재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도시재생 성과와 매력을 알리는 홍보관이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큰 주목을 받았다.

전북에 폭삭 빠졌수다 '주목'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전북홍보관, 관람객 사로잡아

전북의 도시재생 성과와 매력을 알리는 홍보관이 2025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큰 주목을 받았다.

전북개발공사(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삼척 정라자구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 참가해, 도내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거점시설 연계 투어프로그램을 알차게 소개하며 성황리에 홍보를 마쳤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전국 각지의 도시재생 사업은 물론, 다양한 산업·기술·정책을 한자리에서 공유하고 교류하는 대외적 홍보의 장으로 꾸러졌

다.

전북개발공사와 도내 14개 시·군은 연합부스를 운영하며 전주시를 비롯한 지역별 대표 거점시설을 소개했다.

특히 활발히 운영 중인 거점시설과 주변 명소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은 많은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관광 가이드북 역할을 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전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련한 홍보리플렛의 QR코드를 통해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투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의 뜨거운 반응은 행사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 기업사랑도민회, 리더스 4차 포럼 개최... 건강·사기 진작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가 최근 회원사 임직원의 건강과 사기 진작을 위한 리더스 4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회원사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안영식 회장이 강사로 나서 평소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건강관리 노하우와 근육·체력 유지법, 치료법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직원들이 건강해야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며, "기업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마저 잃으면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오늘 강의와 실습이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하며 회원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법령·제도, AI 등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포럼을 운영하며, 기업 현장과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 왔다.

이번 건강 포럼은 회원사 임직원의 체력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농심천심(農心天心)' 전북 농산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시민과 만나

전북농협,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참여... 샤인머스켓 등 최대 16% 할인 판매

전북에서 정성껏 길러낸 싱그럽고 건강한 농산물이 서울 시민들을 직접 찾아왔다.

전북농협은 지난 25일과 28일 이틀간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로장터'에 참가해 풍성한 전북 농특산물을 선보이며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널리 알렸다.

이번 행사는 도농이 함께 어울려 농업·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공감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흔들리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전북농협은 남원시조향공동사업법인,



공덕농협, 해리농협과 손잡고 향토한 샤인머스켓, 달콤한 고구마망경, 믿을 수 있는 소금세트 등 다채로운 선물세트를 준비해 시중가 대비 최대 16% 저렴한 가격에 판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관람객들에게 샤인머스켓의 풍부한 영양, 고구마의 든든한 효능, 천일염의 건강한 가치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며 눈길을 끌었다. 또한 '농심천심' 퀴즈 이벤트가 함께 열려 관람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활기찬 분위기를 더했다.

이를 통해 전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힘을 보탤다.

이정환 전북농협 본부장은 "농심천심은 신토불이(우리 농산물 애용)와 농도불이(도농 교류) 운동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2025 전북국제금융콘퍼런스 개최

'초연결시대, 금융·AI 융합이 바꾸는 미래' 주제로 발전 방향 모색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금융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국제금융콘퍼런스(JIFC)를 개최하며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지난 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전주시(시장 우병기)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초연결시대, 금융·AI 융합이 바꾸는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금융 전문가와 학계, 대학

생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전북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피델리티(Fidelity),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즈(Allianz Global Investors), 웰링턴(Wellington) 등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콘퍼런스는 두 개 주제로 진행됐다. 첫째 주제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산운용과 리스크 관리'에서는 인공지능 핀테크 기업 퀀티의 한덕희 대표가 발제를 맡았고, 블랙록의 제랄드 가비 매니징 디렉터, 피델리티 조 한머, 알리안츠 요르크 호프만, 웰링턴 필립 브록스 퀀티 박성민 COO 등 전문가가 패널에 참여해 심층 토론을 이어갔다.

둘째 주제는 '스태일 코인,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로, 한동욱 전북 카카오투라우드 디지털혁신센터장,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소장, 이정우 한국 디지털자산수탁 COO, 이정현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이 참여해 미래 금융 환경과 디지털 자산의 활용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8개 기업, 잠재고객 대상 홍보·관촉전

전북TP, 장수 트레일레이스와 손잡고 참여기업 판로 개척 지원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대표 스포츠 이벤트인 2025 장수 트레일레이스와 연계해 지역 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장수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 현장에서 '2025년 장수군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8개사와 함께 공동 판촉·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장수군과 (주)락앤락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와 캠퍼스종합기술원이 지원하는 장수 트레일레이스는 국내 최장 거리 트레일러닝 대회로, 장수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한 산세를 배경으로 한 코스가 강점이다. 특히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MZ 세대에 인기 끌며, 명실상부한 전국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판촉행사에서는 장수의 풍요로



운 자연이 길러낸 레드푸드(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를 활용한 농식품과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토마토몬스터, 농업회사법인 하오마을(유) 등 8개 기업은 시을 행사 구매 프로모션, 이벤트존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제품을 알렸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참여기업들이 단순한 전시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와 현장에서 호흡하는 생생한 판촉의 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